

다카야수 동맥염의 임상양상 및 경혈관 중재적 치료술의 결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심장내과

홍성관*, 최동훈, 윤영섭, 장양수, 심원흡

목적: 다카야수 동맥염 환자의 임상양상 및 중재적 치료술의 성적과 재협착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방법: 1985년부터 1998년까지 본원에 내원한 52명의 다카야수 동맥염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진단시 평균 연령은 31세(7-61세)였으며, 남성 7명, 여성 45명이었다. 중재적 치료술은 풍선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으며, 질병 활성도 인자(ESR, hemoglobin)를 측정하였다.

성적: 환자의 첫 증상부터 진단까지 기간은 평균 56개월이었으며, 내원시 주증상은 두통(12명, 23%), 파행과 호흡곤란(각각 8명, 15%), 흉통(5명, 10%), 고혈압(4명, 8%) 순이었다. 침범 혈관은 좌쇄골하동맥이 36례(total 31, subtotal 5), 좌총경동맥 21례(total 10, subtotal 11), 우쇄골하동맥 19례(total 15, subtotal 4), 좌신동맥 18례(total 4, subtotal 14) 순이었다. 모두 14명에서 16례의 중재적 치료술이 시행되었는데 좌신동맥 4례, 우신동맥 3례, 복부 대동맥 3례, 좌쇄골하동맥 2례, 좌총경동맥, 우총경동맥, 흉부 대동맥, 우장골동맥에 각각 1례씩이었다. 이 중 7명이 풍선확장술, 5명이 풍선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술에 성공하였다(성공률 86%). 총 14명중 9명에서 평균 35개월후 추적검사를 시행했는데 이중 8명에서 재협착 소견을 관찰하였다. 재협착이 발생한 환자들은 만성적 빈혈과 ESR치의 상승 소견을 보였다.

결론: 다카야수 동맥염 환자의 경혈관 중재적 치료술의 초기 성적은 비교적 좋은 것으로 생각되나, 재협착률이 매우 높다. 재협착이 발생한 환자들에서 만성적 빈혈과 ESR치의 상승이 관찰되어 이에 대한 추 후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폐쇄성 장대퇴골 동맥의 스텐트 삽입술

가천의대부속 김병원 내과학교실

정중배 · 고광곤 · 최인석 · 신익균

연구배경

폐쇄성 말초혈관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심한 협착이 있는 경우 고전적인 치료로는 bypass surgery가 시행되어져 왔으나 혈관 중재술이 발전하면서 비수술적 치유가 가능하게 되었다.

혈관 중재술중 풍선 확장술은 보편적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어져 왔으나 혈관내막 박리, 잔존 협착, 혹은 급성 폐쇄 등이 문제가 되어왔다. 최근 혈관내 스텐트 삽입술이 도입되어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저자들은 장대퇴골 동맥내 스텐트 삽입술을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방법

장대퇴골동맥에 심한 협착 (>70%)이 있고 증상이 있었던 23명의 (27개 스텐트)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부분(21/23)에서는 후향적 접근법으로 9F short sheath를 사용하여 시술하였다. 시술중 heparin은 5,000IU 투여하였고 Aspirin 및 초반기는 dipyridamole 225mg, 후반기는 ticlopidine 250mg을 투여하였다.

결과

대상 환자 23명중 조기시술 성공률은 100%이었고, 중요 합병증으로는 사망 1예, 출혈 및 혈관 합병증 2예 이었다. 시술된 스텐트로는 Palmaz (Johnson & Johnson) 16예 (17개), Strecker (Boston-Scientific International) 6예 (9개), Self Expandable wall 스텐트 (Schneider) 2예 (2개) 이었고, 추적관찰 기간중 (3개월 - 48개월) 재중재술을 2예(8.7%) 시행하였다.

결론

폐쇄성 말초 혈관질환에서의 스텐트삽입술은 선택된 환자에서 비교적 안전하고, 성공적이었고 풍선 확장술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심한 병변이나 합병증이 있는 병소에 적용 가능하여 중재적 치료술의 영역을 한층 더 넓일 수 있는 좋은 보조기구나 하겠다.